

세대 차이를 넘어 사랑으로 가족 만들기

우리 사회 곳곳에 남남이던 어르신과 대학생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바로 서울시에서 '공유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 공간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어르신은 빈방을 젊은이들에게 빌려 주고 젊은이는 어르신을 부모처럼 공경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지붕 세대공감 가족! 세대를 넘어, 이해타산을 넘어 화합과 사랑으로 가족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세대 간 통합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훈훈한 情이 흐르는 한 지붕 아래

“오늘부터 기말고사지?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 냈다.”
 “우와! 할머니.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피곤하실 텐데 뭐 하러 준비하셨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새벽부터 나가는데 할미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너나 많이 먹어. 그래야 힘을 내서 공부하지.”
 “잘 먹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쓰레기 치워 드릴게요.”
 “시험기간에는 쉬어.”

“아니에요. 해드리고 싶어요. 주말에는 장도 같이 보러 가요. 장바구니 무겁잖아요.”

어스름이 아직 다 가지지 않은 새벽 시간. 서울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식탁에 마주 앉은 김미순(가명, 66세) 할머니와 하진원(가명, 23세) 대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소한 불고기 냄새가 식당에 가득하다. 웃음소리도 가득하다. 한 지붕 밑에서 훈훈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혈연에 의한 조손 관계가 아니지만 친조손 관계보다 더 다정해 보인다.

김미순 씨가 하진원 학생을 만난 것은 지난 2014년 2월. 독거노인으로 적절하게 살아가던 김미순 씨는 노인정에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빈 방을 빌려 주면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안마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신반의 하던 차에 구청에서 날아온 홍보물을 보고는 자기도 대학생에게 방을 빌려 주고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구청의 주선으로 하진원 학생과 인연이 닿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김미순 씨는 친손자처럼 쓰레기도 치워 주고 장도 같이 보러 가는 하진원 학생 덕분에 적적하던 노년 생활에 쓸쓸한 재미가 생겼다.

이처럼 서울시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대학생들에게 방을 빌려 주고 한 지붕 아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따라 노원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의 자치구에서 주거 공간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어르신이 여유 주거공간을 청년과 공유하고 청년은 생활서



광진구 주거공유 프로젝트

비스를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지원 및 청년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공유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포기할 수 없는 따뜻한 정책

서울시가 처음 주거 공간 나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 100만 시대로 진입한 데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이슈까지 되는 등 청년 주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도 함께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없을까요?”

“어르신들은 가족이 없거나 적다 보니 빈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가족이 없어서 적적해 하시죠. 남은 빈방을 청년들에게 빌려주고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자식 대신 가족이 되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에서는 2012년 우양재단이라는 복지관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보니 쉽지 않았다. 우선 우양재단이 마포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홈 셰어링

홈 셰어링이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소한 임대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에게: ·방만 임대료(가스, 물, 전기, 인터넷)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는 어르신과 대학생이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세대문구형에서는: ·서울의 빈방을 최대한 많이 임대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학생에게: ·주거 문제로 고민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의 소통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진행 방법

1. 신청 접수
2. 대상자 방문, 상담 신청
3. 어르신 및 대학생간 합의 체결
4. 입주

■ 참여 신청

-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나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는 어르신과 대학생이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 접수 안내 : 세대문구형 복지정책과 (☎ 330-1609)

서대문구 홈셰어링 프로그램

지기관이다 보니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을 모집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담당자가 각 자치구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서 서울 전역의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서울시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세대 간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논의 끝에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가능한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즉 각 지역의 주거환경 및 학생 현황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2013년 하반기에 서울시는 자치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였고 그해 11월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자치구를 선정하고 홍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실정에 밝기 때문에 현장에 밀착하여 어르신과 대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모집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서울시가 맡는 주된 역할은 사업비 지원이고 그 외에 사업홍보, 보험가입, 이사서비스 지원 등의 부수적인 지원을 한다. 자치구에서는 어르신과 대학생 신청자에 대한 홍보, 관리 및 매칭 서비스를 담당한다.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은 이렇게 앞에서 끝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가족을 구합니다 VS 방을 구합니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째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를 진행

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자치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모는 보통 연 2회 있는데, 자치구의 공모를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사업비 지원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자치구에서 방을 빌려 줄 어르신과 대학생 참여자의 접수를 받아 서로의 조건을 조절하여 매칭 시키는 것이다. 단순 매칭이 아니라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구별로 지역 현실에 맞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을 매칭하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주거 공유사업으로서, 어르신은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는 큰 맥은 동일하다.

참여요건을 보면 어르신의 경우 대학가 주변에 거주하면서 자가 또는 전세 주택으로 임대 가능한 별도의 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월세 주택은 제외),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재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제외).

대학생의 경우는 각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 및 휴학생으로서 전과나 신용불량 및 건강상의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어르신에 대해 일정시간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주당 5시간 내외). 서로 간에 제공하기로 한 생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생활서비스는 비전문가인 보통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가요양 서비스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된다. 보통 말벗 되어 드리기, 문 단속과 가스 단속 등 안전관리, 장보기·청소·설거지 등 간단한 가사일 돕기, 시장·병원·모임·행사장 등에 모셔 드리기, 못질과 같은 수선 및 전자기기 작동 보조, 외국어·컴퓨터·스마트기기 사용법 설명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 공간의 환경은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독립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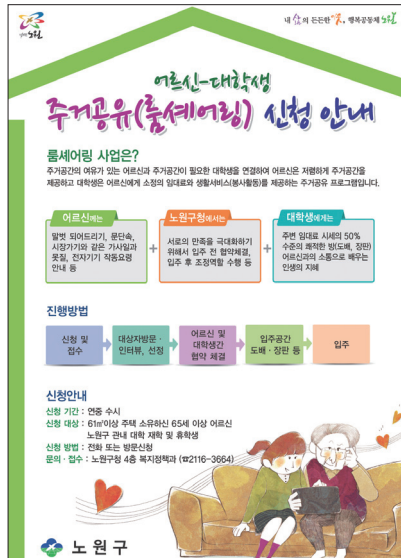
어르신-대학생 홀세어링 협약식

이어야 하고,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은 협의에 따라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운영해야 하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운영해서 대학생에게 부담이 적도록 한다. 주거 환경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 약간 조절할 수 있다.

한지붕 세대공감에 동참하는 자치구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는 2014년 현재로선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이 있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자치구를 선정하는 데다 독거노인 및 청년 주거 문제가 각 지역마다 공통된 해결과제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담당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를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 대학가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독거노인 등 노인 인구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고려해서 각 자치구에서 세부 전략을 짜서 지역 현



노원구 롬세어링 프로그램

실에 맞도록 홍보 및 모집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자치구 중의 하나는 노원구라고 할 수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2013년 노원구 자체적으로 ‘롬세어링’ 사업을 펼친 바 있다. 그런 자체적인 추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4년에 서울시 ‘자치구 공유축진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사업비를 받아 롬세어링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노원구는 2014년 4월 서울시로부터 1천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 현재 30가구 34명의 대학생이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홈 세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2014년 4월 서울시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 현재 5가구 6명의 대학생이 매칭이 되어 가족을 이루었다.

광진구는 2013년 11월 서울시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 14가구, 15명의 대학생이 매칭이 되어 가족으로 살고 있다.

대화와 양보로 만들어가는 가족애

어르신과 학생이 매칭 되기까지는 많은 사전 과정이 필요하다. 각 자치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방을 대여할 수 있는 어

르신을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직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

자치구 담당자는 “처음에는 노인 수요가 많이 부족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다. 노인정에 나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토지대장을 보고 노인이 있는 세대마다 안내장을 보내 드리거나 구정 신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처음에는 홍보 효과를 내기가 어려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이 나서 지인의 말을 듣고 구청에 문의전화를 먼저 걸어오는 어르신도 종종 생겼다.”고 설명한다.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홍보물을 돌리거나 게시판을 이용한다.

홍보를 통해 신청자를 받으면 적절한 수요 공급을 매칭 시키기까지 조율할 것이 많다. ‘어르신이 남자인 경우에 여대생은 매칭 시키지 않는다’, ‘어르신이 여자라도 아들이 자주 드나드는 집에는 여학생을 매칭 시키지 않는다’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남남끼리 만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치구에서 나서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원만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경우 구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할아버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생활 서비스를 받고 싶으세요?”

“컴퓨터를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그리고요?”

“가끔씩 말벗이나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럼요. 그것도 학생에게 미리 약속을 받을게요. 임대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이 조금 낡았으니까 저렴하게 해줄게. 그냥 시세의 50%대로 하세요.”

“네. 제가 학생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무적이기보다는 가족 어른을 대하듯 세심한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우범지역은 아닌지, 집이 너무 낡지는 않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등 구체적인 항목을 검토한다.

대학생의 경우는 구청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구청에서 면접을 본다. 재학증명서 등과 같은 신분 확인 등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자치구 측에서는 대학생이 원하는 바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한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도배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등의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모두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

양측 의견에 대한 사전 조율이 끝나면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한두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협약식을 통해 최종적인 계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보통 일 년에 두 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시기에 맞춰 단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

입주 후에도 자치구에서는 수시로 전화 상담이나 방문 등을 통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점이 있을 경우 조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르신과 대학생이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계약서에 세세하게 기재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계약 내용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로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치구 담당자는 말한다.

그 외에도 어르신과 대학생이라는 가족이 탄생하기까지 돕는 손길이 많



어르신-대학생 룸세어링 협약식

다. 사회적 기업 등에서 입주할 방의 도배, 장판을 해주고, 재활용센터 등에서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필요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또한 어르신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생에 대해 주 3시간 자원봉사실적을 인정하도록 혜택을 주는 자치구도 있다.

이렇게 서울시의 지원, 자치구의 노력, 사회적 기업, 재활용 센터의 기부 등 대화와 소통 그리고 기부와 나눔을 통해 어르신과 학생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룸세어링은 사랑 나누기!

주거 공간을 나누는 사업은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카시옹(colocation)’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룸세어링 사례다. 프랑스의 어르신과 대학생은 ‘두 세대가 함께’라는 협회에 의해 연결되는데, 이미 300쌍의 어르신과 대학생이 룸세어링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다. 대학생이 어르신에게 영어회화나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생활서비스를 하고 어르신은 대학생들에게 방을 내어 주는 방식이 많으며 양측 만족도도 높아져서, 일반 임대나 원룸 같은 주거 대신 코로카시옹에 대학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이 나고 한번 가족을 이룬 어르신과 대학생이 1년, 2년이 지나도록 재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대학생과 같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병원가자고 그러면 웃으면서 네 하고 따라나서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요.”

“젊은 학생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분리수거 하는 날이면 내가 나가기 전에 벌써 나가서 다 처리해 주곤 하죠.”

대학생들은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구마를 썬 놓으시거나 간식을 마련해 주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 몸보신 하라고 고기도 구워 주시고요.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임대료도 저렴한 데다 학교에서 가까워서 편해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객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건데도 꼭 고향에 있을 때처럼 안정감이 느껴져요.”

어르신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고독감 해소와 고정적인 수입을 들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 문제, 고독사 등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손자 같은 든든한 식구를 가지게 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하고 비록 저렴한 임대료이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생김으로써 생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주거환경이 안정됨으로써 라이프사이클도 안정되고 객지 생활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

아직 일각에서는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닌 남과의 공유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도 함께 공유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날수록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소통만이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주거 공간 공유’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멋지게 실현해 보이고 있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다. 공간을 나눔으로써 정을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세대 간 갈등의 폭을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는 것이다. ✨

Interview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담당자

“갈등이 아닌 공감의 정책, 보람도 큼니다!”

Q.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자치구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해서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하고 개별적으로도 자치구와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상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Q.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A.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과 한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새로운 주거 형태이자 세대 통합의 모델인 한지붕 세대공감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Q.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사업 담당자의 열의와 추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업 내용이 같아도 추진하는 사람이 열의가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담당자가 일일이 어르신과 학생을 만나서 면접을 봐야 하고, 현장 확인, 사후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한 가정마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중요하다.

Q.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어떻게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A. 일차적으로는 주거 공간 공유를 통해 노인과 청년 세대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세대 차이를 넘어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도배, 장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도 하고 재능 기부 등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이 사업 안에 세대 간의 화합, 나눔과 봉사의 실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이자 서울시의 공유서울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라 하겠다.